

우리 16강입니다.

이제 고전문법 부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보기의 ㉠부터 ㉡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학년 문제니까 아무래도 좀 쉬울 거예요.

동명일기인데 애가 중세국어가 아니네.

시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1772년이니까 18세기, 옥 아니야.

그래서 근대 국어로 넘어온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번 이거 우리 전문 다 봅시다.

위아래 내려갈게요.

1번 보니까 붉은 했는데 이거 아직 뭐 안 돼 있는 거죠?

원순모음 안 돼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ㅁ이나 ㅂ이나 ㅍ 같은 경우.

우리 ㅁ이나 ㅂ이나 ㅍ, 이런 게 바로 뭐에 해당해요?

순음이죠.

입술소리.

그러면 입술소리들 아래에 중성모음으로.

입술소리 아래에 우리가 초성자, 중성자로

원래는 원순모음이 오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평순모음.

—는 우리 입술을 둥글게 말지 않아도 되는 모음이기 때문에

평순모음이라고 하고 ㅓ는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글자를 보게 되면

ㅁ, ㅂ, ㅍ, 이렇게 되어있는 글자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현대 국어에 ㅁ, ㅂ, ㅍ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 역시 붉은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걸 보니까

ㅂ 아래에 —모음이 현대 국어에서는 ㅓ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고

원순모음화가 아직 적용 안 돼 있는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제 답지에 걸려있네요.

기운이, 라고 했는데 끊어적기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단어라고 보고
중요한 건 더하기 조사 ㅣ가 붙었는데 애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기운으로 끊어 적었던 말이에요.

원래 15세기 중세 국어였다면 ㄴ이 넘어가서

연음되는 식으로 적혀있었을 텐데

따라서 1번은 끊어적었다를 확인해볼 수 있고요.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건

동해바다에 해가 떠오르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출 과정을 지금 묘사합니다.

첫 홍색을 헤아고.

㉡ 부분에 보니까 홍색이었어요.

더하기 을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아고, 헤치고, 라는 뜻인데 지금 이 단어는 역시나 붉은색의 단어.

이 홍색으로 바뀐 거고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뒤에 나와 있는 조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보니까 을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현대 국어에서도 그대로 을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즉 현대 국어와 같은 을이라는 걸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기에 목적격 조사라고 한다면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현대 국어에 있는 목적격 조사는 아래에 있는 두 개인 거 아시죠?

을하고 를.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세 시기에는 이게 더 있었다.

즉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 한 번,

그리고 앞에 있는 체언의 모음이

양성모음 계열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나뉘지는 구성으로 한번 해서 네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가도록 하죠.

혜앗고 텃똥의, 이거 구개음화 안 되어있는 거 보이죠?

현대 국어로 왔을 때는 천중.

즉 하늘 중이 되는 겁니다.

하늘 한 가운데 하늘 천이죠?

그래서 구개음화 표현 안 되어있고.

텃똥의 쟁반 갖흔 것이, 이 갖흔은 ㉠에도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갖흔 것이 수레박희 갖하야

물속, 이것도 원순모음 안 돼 있는 거 보이죠.

물속이 아니라 물속으로 됩니다.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다시 올라 붓흐며

항독 갖흔, 항아리 독 같은 기운이 했을 때 이 갖흔 부분 한번 볼게요.

3번 답지는 아래아가 지금 사용되었네, 라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기되어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대 국어에 와서 같은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라는 건 됐고.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이걸 됐고.

이거에 적용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현재 현대 국어에서 같은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놈인데

애가 역으로 갑니다.

아래아를 쓰던 표기를 하니까 이렇게 썼겠죠.

다음, ㅌ 받침은 쓰질 않죠.

중세시기에는 8종성법.

그리고 근대 시기에서 7종성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ㅌ은 8종성이든 7종성이든 형태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곧바로 뭘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결과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를 그냥 곧바로 ㅅ으로 바꾸면 이 ㅎ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서

ㅋ, ㅌ, ㅍ, ㅊ가 되는 건 축약의 원리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음운 변동의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근대 국어 시기에.

우리 이 작품은 근대 국어잖아요.

근대 국어는 역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걸 재음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이 ㅌ 받침을 ㄷ과 ㅎ으로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에는 ㄷ이 남고 그다음 초성에 ㅎ으로.

이렇게 해서 재음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여기는 재음소화.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 ㄷ이 ㅅ으로 바뀐 건

지금 7종성법이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ㄷ하고 ㅅ을 함께 쓰지 않고

ㄷ이 빠져버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7종성법의 적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으로 좀 생각해보면 현대 국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3번 답지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붙어

것찰 빗최던 거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듭 적기가 아니죠.

보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옛말에 아래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썼다 치고 그리고 이 모음조화가 깨져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걸 지금 이렇게 썼어야 끊어 적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ㅅ이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가 적용된 것이죠?

따라서 4번은 거듭 적었다면 또 이게 받침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적은 거로 볼 수 있지

거듭 적은 표시는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ㅁ 부분은

모여 소 혀터로 드리워 물 속의 풍덩 빠디난 듯시브더라고 했는데

빠디난 했을 때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새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ㅅ 계열 합용병서는 근대 국어지만

아직은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새이 사용되었군.

5번도 확인이 가능해요.

2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부터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이 문제는 1학년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외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보기 보고 풀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힌트를 좀 주면 현대 국어에 모음 체계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워는 굳게회먹고 배탈인데

애네들 지금 앞쪽에 있는 걸 전설모음이라고 잡아주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걸 우리는 후설모음이라고 잡아주죠.

물론 평순이나 원순이나에 따라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쪼갠 때는 혀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이나 중모음이나 아니면 저모음이나 나누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중세 국어에서의 기본자는 양성의 아래아와 음성의 ㅡ, 중성의 ㅣ 고

지금 이 답지에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세나 현대나 이 ㅡ나 ㅣ의 발음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 지금 이 현대 표기 체계에서 一나 | 의 발음은
현대 표기 체계에 있는 표를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는데
| 를 발음할 때는 여기 있죠?

그다음 一 발음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혀의 위치, 높이는 변화가 없는데

혀가 전설에서 후설로 쪽 빠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번 두 개를 발음해보세요.

|, 一 하면 혀가 一하면서 쪽 빠지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혀가 뒤로 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돼요.

뭐냐하면, 혀가 얇다, 깊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현대어 해석에 | 부분 설명하는 부분 보시면

| 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즉 평순이라는 이야기죠?

소리가 얇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 문헌에서 소리가 얇다는 건

| 했을 때 혀가 뒤로 가 있지 않고 앞에 와 있으니까

그게 얇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一.

중간 부분에 보면 一는 혀를 조금 오므라지게 하고

다음에 소리는 깊지도 얇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를 깊지도 얇지도 않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이거, 아래아.

맨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혀를 오그라지게 조음하고 소리는 깊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 아래아의 위치는?

아래아의 혀의 전설, 후설을 따졌을 때 위치는

一보다 어뻐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뒤로 가줘야 돼요.

一보다 더 뒤로 가줘야 돼요.

아래아의 위치는 우리는 정확한 추정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한 이쯤 됐을 거로 짐작하시면 좋아요.

아래아는 후설 저모음입니다.

혀가 뒤에 있고 그리고 혀가 낮아요.

저모음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ㄱ의 입술 모양을 하고 ㅏ를 발음하는 애매한.

혀는 뒤로 가서 약간 말린 상태고

이렇게 발음이 됐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래아가 소리가 깊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㉑는 ㉒와 달리 발음할 때 얇은 소리라고 했는데 지문에 의해서.

사실 이건 지문 보고 푸는 거니까 반대로 가줘야 되죠?

그래서 ㉑는 ㉒와 달리 깊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마땅합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㉓는 ㉑와 달리 글자 모양이 평평하게 생겼다.

당연하죠.

글자 모양 평평하게 생겼죠.

다음에 ㉔는 ㉑와 달리 발음할 때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애는 오그라들고.

다음에 4번은 모두 가운데 글자 11자.

기본글자 11자의 기본자들이었죠?

다음 대상의 모양을 본떴다, 라고 했는데 뭘 본뜬 거였어요?

하늘을 본떠, 땅을 본떠, 서 있는 사람을 본떴다.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넘어갈까요?

3번입니다.

보기에 ㉕부터 ㉗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렇게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지문으로 나와 있으면

출제자들은 문제 어렵게 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1학년 교과서에, 교과서가 나뉘어져있잖아요.

그래도 다 배우는걸요.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세종어제훈민정음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아요.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극에 부분이예요.

풀이는 어떻게 되어있죠?

등극, 중국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라고 하는 조사의 역할은 뭐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비교 부사격 조사죠.

그 뒤에 중국과 다르다, 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

비교 부사격 조사.

이거 부사격 조사예요, 접속 조사 아니예요.

그러면 1번 틀린 거 알겠어요?

원인이 아니죠.

비교의 대상이 됨을 알려준다고 정보가 나왔어야 됩니다.

다음에 ㉠, 어린.

너무나 잘 알죠?

어리석다, 라고 하는 현대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예전에 어리다.

그래서 2번, 단어의 의미가 지금 다르죠.

다음 ㉡은, ㄸ+ㅡ+들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3번 답지 ㉡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애는 현대어 풀이를 보게 되면 뜻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과정이 되게 많죠.

어떤 거 꼬집어내야 돼?

ㄸ계열 합용병서 사용된 거,

이어적은 거 확인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단어는 어떤 거였다?

이렇게 쓰던 단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합용병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스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바뀌었을 거냐 짐작을 한다면 근대 국어.

왜? 7중성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8중성일 때는.

다시 한번 적용해볼까요?

우리 8중성법이라고 하면 순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그리고 ㅇ이었죠?

그것이 7중성 근대 국어 때는 ㄱ, ㄴ.

ㄷ이 빠지고 ㄹ, ㅁ, ㅂ, ㅅ, ㅇ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ㄷ 빠지는 거 그다음에 ㅇ이 ㅁ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였죠?

다음 갑니다.

4번 보게 되면 뭐가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은 자음자예요?

뽀한할 때 여린히읃 이야기하는 거죠?

한에서 여린히읃.

그다음에 5번에서 ㉔,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에 초성에 이어 적었다, 라는 거.

이어적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없죠?

4번 가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조사의 기능에 대해 탐구 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죠.

그런데 풀이해보니까 공자의 옛 단어는 결국 이거였음은 알겠는데

주격 조사로 애가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 의 역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가 생기면 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 는 현대 국어에서 가로 바뀐 거로 봤을 때

앞말이 행위의 주체.

즉 주어임을 알려준다.

다음 ㉠, 증자다려할 때 풀이 어떻게 되죠?

증자에게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2번에 에게로 바뀐 거로 봤을 때

그 앞말이 행위에 미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지금 풀어가 뭐예요?

~와, ~과, 이렇게 갑니다.

즉 접속조사 기능을 이며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앞말과 뒷말을 비교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단순 접속시켜주는, 대등 열거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효도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적어볼게요.

아까 목적격 조사 이야기했는데 관형격 조사 3개 기억하시죠?

크게 구분하는 거는 일단 이거.

여기에 있는 이 스을 쓰는 것은 무정명사, 감정 없는 대상 뒤.

여기에 나와 있는 곁 쓰는 건 유정명사 뒤.

그런데 유정명사 뒤에 왜 두 개나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모음 조화를 고려해야죠?

양성모음, 음성으로 보니까 앞에 양성 뒤에 아래아 의,

음성 뒤에 -+ ㅣ.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사이 유정명사 뒤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도 쓰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 뒤에는 쓰일 수 있어요.

이런 거 기억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4번 설명은 관형격 조사의 기능.

앞말이 뒷말을 꾸며준다 문제 없습니다.

5번 ㉡의 경우에는 틀로 바뀐 거로 봤을 때

앞말이 동작에 미치는 대상.

즉 목적어임을 보여준다.

5번 문제 가보죠.

중세시기의 국어 특징 설명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은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일부 내용이고 ㉡은 용비어천가인데
보니까 앞서 나온 정보네요.

어린이나 하니라 이런 부분이 ㉡에서는 여름이나 하나니.

이런 것들이 어휘의 의미가 오늘날과 다르다.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지금 현대어 풀이를 봐야죠.

어린의 풀이는 뭐? 어리석은.

하니라의 풀이는 뭐? 많다.

또 ㉡에서 여름의 풀이는 뭐? 열매.

그다음에 하나니의 풀이는 뭐? 많은.

이렇게 풀어가 됐죠?

즉 어휘의 의미가 형태만 보고 현대랑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겠구나.

이 이야기고요.

다음 ㉢, 2번에 전차 또는 뭉새 부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차는 까닭이라고 하는 풀이가 돼 있고

또 뭉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 부분에 흔들리므로로 풀이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차라는 단어나 뭉다, 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이런 단어는 뭐라고 한다? 죽은 단어.

즉 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3번은 그냥 눈에 보이죠.

여린히움이나 아래아 같은 것이 보였고요.

문법적 측면에서의 배랑 불휘 부분인데

지금 배는 풀이가 어떻게 돼요? 바가로 풀이가 되고

그다음에 불휘 같은 경우에는,

뿌리의 옛단어는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불휘예요.

이게 뿌리예요.

그러면 주격조사가 없었나요, 라고 한다면

목음 주격 조사가 이럴 때 쓰인다고요.

| 계열의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이거 발음을 할 때 그냥 불휘깊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휘~ 이렇게 나가요.

발음은 이 자리를 비워주는 발음을 해주는데

형태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 조사를 쓸 때는 뭐 있다고 했습니까?

일단 이가 있고 작대기 | 가 있고 목음 주격조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 현대 국어에서 현재 쓰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즉 받침이 있으면 그냥 여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 뒤.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다? 모음 뒤에.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모음 뒤에 받침 없이 쓰이게 되면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소이를 쓰면 쇠, 이렇게 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뭐를 제외한?

| 나 | 반모음계열로 끝나는 모음 제외한 단어 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복잡하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냥 애는 일단 모음 뒤야.

모음 뒤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목음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게 | 로 끝나거나 아니면 | 반모음으로 끝나거나.

그러면 애는 뭐냐면, 애 같은 경우에는 | 반모음이 뒤에 가 있는 거야.

불휘.

이게 후이거든요?

그래서 | 반모음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다 만약에 모음이니까

여기에 | 를 또 써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돼.

불휘+ |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 계열로 끝난 것 뒤에는 어떻게 써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묶음 주격 조사가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문법적 측면에서 어쨌든 이 자리는

현대 국어에서는 다 가가 쓰여질 자리지만

가가 안 쓰였다는 거죠.

그걸 주목해본 게 4번이고요.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었다, 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이어 적었잖아.

다 이어 적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죠.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뭘 후보로 두고 있어요?

말간 가람이라고 했습니다.

띄어쓰기는 안 해요.

여러분, 이 띄어쓰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 와서 독립신문 이후로 띄어 쓰게 하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당연히 안 한 게 특징이고

다음에 2번, 마잘이라고 했는데 이 마잘의 현대어 풀이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마잘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이죠.

일단은 받침음 소실이고 두 번째 뭐냐면, 아래아 변화인데

아래아 변화가 두 개가 다르게 가는 거 보이죠.

지금 1음절, 2음절이 있으면

먼저 순차적으로 2음절 이후에 아래아가 먼저 변합니다.

그런데 주로 一로 많이 변해요.

一로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一로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1음절에 있는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卜로 변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지요.

그래서 애는 아래아가 卜로 변하고 애는 一로 변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2번은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은 자음은 반치음.

그다음 모음은 아래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에 안아, 이 부분을 끊어 적지 않고 이어 적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맞네요.

그다음에 긴 여름.

방점 하나 찍었죠?

방점 하나 찍으면 애는 무슨 성입니까? 거성.

그러니까 높은 소리로 읽혀져요.

다음에 저비라고 했는데 풀이가 뭐야? 제비.

그러면 여기 저비나 제비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5번 설명은 형태는 비슷하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의미는 같고 형태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 중세 국어 자료인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이거를 기으로 읽었다, 라는 것으로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애를 기로 읽었을 거래요.

증거 자료를 봅니다.

㉠를 보세요.

화면에 자료는 난이 뭐 뒤에?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는 걸 보여준대요.

너무 쉽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조사로 쓰이는, 보조사로 쓰이는

이 난이 1로 끝나는 체언 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를 힌트로 먼저 제거할까요?

1번 제거, 4번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1번과 4번은 현대어 풀이 같은, 떠받치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풀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가 보조사 는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체언 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5번은 2번에 나, 3번에 머리, 5번에 이화, 배꽃이죠?

이 세 개는 체언이야.

그런데 그중에 1로 끝나는 체언은 몇 번? 3번이죠.

머리.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 정보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 잡, 좃 같은 경우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해놓고 예 세 개를 줬어요.

봤더니 먼저 ㉠같은 경우에는 돕다가 삼이 들어간 구성으로

이렇게 된 형태고

㉡은 듣다에 잡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다음에 보다는 경우에는 좃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 순경음 비읍이 만들어지고

애는 안 만들어져요, 라고 하면

너무 기본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본형으로 제가 다룰 쓰긴 했지만

애는 지금 뭐가 붙었다고 봐야 돼요?

삽 뒤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들어가?

삽 들어가고.

여기는 뭐 들어가? 잡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

잡 들어가는 구성인 건 알겠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그런데 어미 쪽이 다르죠.

여기는 지금 각각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나 ㉡의 경우에는 으니,

다음 애는 으면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출발한다면

애는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 이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듣잡고 해서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애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순경음 비음 받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순경음 받침이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이 만들어지잖아요.

1번 보겠습니다.

㉠은 현대 국어에서 도우시니의 형태로 바뀌어서

객체 높임을 표현하는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현대 국어로 으면,

도우시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잡이라고 하는 구성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냐고요.

이건 지식적으로 외워야죠.

현대 국어에 와서 높임을 위한 선어말 어미로는 뭐만 존재한다?

주체를 높이기 위한 시, 으시만 있을 뿐이죠.

삼, 잡, 좁.

이런 것들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사실 지식적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도우시니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맞는데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다, 현대에 와서는.

이 이야기예요.

다음 2번 보시면, ㉠이 사용된.

이때 보좁으면이라고 썼던 옛표기는 역시 그러면

누구를 보는 건데 목적어를 높여주기 위한 객체 높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 국어에는 뭐라고 했어?

뵈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뵈다인데 뵈다, 라는 어휘를 사용한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현대 국어에 와서 객체 높임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뵈니까?

누구누구에게를 누구누구께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께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부사격 조사의 교체죠.

두 번째는 뵈니까?

특수어휘.

테리다 대신에 모시다 사용하고 주다 대신에 드리다 사용하고

만나다 대신에 뵈다, 뵈다 쓰고.

물어보다 대신에 여쭙다, 여쭙다 쓰고 이런 거예요.

즉 2번 설명은 옛날에는 좁을 이용했었지만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뵈다, 라는 아예 다른 단어를 써버리면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번 설명 맞고.

다음에 3번.

㉡하고 ㉢은 순경음 비읍이 연음된 거고

다음에 4번에 ㉠부터 ㉣까지는 어쨌든 이런 놈들이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객체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5번에 ㉠부터 ㉣을 보니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삽, 잡, 좃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맞는 이야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옛말 문법.

중세, 근대 이쪽 문제가 아주 어렵게 못 내요.

제가 지난 시간 막판에 설명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현대 문법은 선생님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그냥 더 자세할 수 없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옛말 문법의 경우에는, 고전 문법의 경우에는

아무 지금 현존하는 강의 중에서는 제일 자세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한 30 설명해준 거거든요.

나머지 70은 넣을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말았어.

왜냐, 넣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보기를 또 주겠지만.

그래서 이 30을 공부했지만 사실 좀 노파심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진 않을까.

그런데 아직 다행이게도 출제자도 이걸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30 내에서는 출제하는데, 내는데 여기서 내다보니까

계속 공통적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요.

결국 뭐냐면, 이 선어말 어미를 이용해서 중세 때 주체를 높이고 객체를 높이고

상대를 높이는 이 방법들을 문제를 내면서 뭘 자꾸 건드냐면,

주체와 객체를 파악하게 하는 문제를 많이 준다는 거죠.

문장의 현대어를 보시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체가 누군지

서술어가 요구하는 객체가 뭔지.

이거는 현대 문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보면, 애는 이어적기, 두음법칙,
구개음화 물어보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

4번에 ㉠이 이걸 이어 적어서 조초미라고 했으니까
끊어적기 절대 아니고.

그다음 10번 문제도 역시 훈민정음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보면, 아까 전에 ㉠은 이미 다뤄봤던 내용이죠?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였던 것이고

㉡을 보게 되면 이런 거 놓친다니까.

딱 보면 이거 좋아, 주격조사야.

그러면 2번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현대어 풀이 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이거를 지금 연결한 현대어 풀이가 뭐라고요?

자기의야.

어떻게 이게 주격 조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주격 조사 아니죠.

여기서는 뭐로 쓰이는 거야?

관형격의 기능으로.

선생님, 관형격 조사로는 아래아 의, 그다음에 의, 그다음에 사.

정말 드물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

이런 아주 특이한 예외들 설명한 건 외우지도 않을 거니까.

이거는 뭐하면 된다?

현대어를 왜 주겠어요, 출제자가.

딱 이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주격 조사는 아니겠구나.
관형격이겠구나.

연결하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이고.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역시나 합용병서 부분 설명하는 거고요.

㉠에 이어적기, 그다음에 ㉡에는 역시나 여린히읃.

앞에 봤던 문제랑 비슷해요, 이것도.

11번 가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풀이할 때는 뭐야?

쟈, 성이에요.

안의,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의 역할을 뭐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안이라고 하는 건 무정명사니까

이 사이 바로 이 의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시다.

1번 ㉠을 보니 스은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구나.

그다음에 ㉡을 보게 되면 현대어 풀이가 봄에, 이건데

지금 2번 답지 어떻게 되어있니?

이렇게 돼 있죠.

풀면 어떻게 돼야 돼?

봄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가보자고요.

이거 현대어 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또 봐.

그러면 또 문제 삼을게.

2번은 쉬워요.

왜? 지금 이게 끊어적기라고 했으니 틀린 건 맞잖아요.

형태를 밝혀 적었다.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밝혀 적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었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이어적기 했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방식을 썼다.

2번은 틀린 거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상해하는 게 선생님, 이거 풀이가 예면

이거 부사격 조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예요, 관형격 조사예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옛날 형태가 이거예요?

부사격 조사를 취급하는 건 이거 아니예요?

이거 두 개 아니예요?

제가 언제 두 개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도 쓰인다고 했었어요.

이건 수업 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애네들은 관형격으로만 쓰이진 않아요.

부사격일 때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에 기능하는 부사격 조사

이놈이나 이놈 같은 경우는 왜 두 개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애는 왜 두 개 있어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애도 ㅈ, ㅊ.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래서 모음조화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쓰고.

또 특이한 경우 아까 전에 | 같은 거 관형격 쓰이고.

사실 특이한 것까지는 안 건드렸지만,

기본적인 틀은 부사격은 두 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관형격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부사격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 2번 답지 같은 경우 현재 답지는 쉽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구분해봐야 된다.

그래서 의를 써놓고 관형격으로 뉘았을 때 정말 이게 관형격으로 쓰였는지.

아니 혹시 부사격으로 쓰인 건 아닌지.

뭐 보고 안다? 해설 보고.

현대어 풀어 보고 아는 거예요.

1:1로 대응하면서.

3번에 보게 되면 모음조화를 지켰다, 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있는 표기인데

이거를 원형대로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죠, 왜?

이어적기로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가 아래아로 나와 있는 체언이기 때문에

아래아가 되어있는 一를 쓴다는 거죠.

현대 국어 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달을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양성 뒤에 음성을 써버리는.

즉 모음조화가 깨져있는 상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양성모음끼리 연결 지었던 모음조화를 지켰다.

그래서 3번 답지는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을 보게 되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반치음이 보이네요.

또 5번에 역시나 합용병서 이야기합니다.

12번 가보도록 하죠.

이건 쉬운 거예요.

아니될새라고 했는데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점이 안 찍혀있으니까 뭐로 가야 된다?

아는 형성.

그다음에 니 같은 경우에는

방점이 하나 찍혀있으면 거성이잖아요, 높은 소리.

그다음에 뭘 부분이 점이 두 개니까 상성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새 같은 경우 점이 하나니까 역시 거성.

그러면 이어주면 이런 모양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

이거는 좀 외우세요.

여러분,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고행, 가형.

또는 ㉠이 빠져서 오형, 아형.

이렇게 구분하는 이 문제인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주어가 1, 3.

2인칭일 때는 는다, 니다 쓰는 거 아시죠?

1, 3인칭일 때 물은 말이 있는 의문문.

물은 말이 있는 의문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옆에 쓰세요.

설명 의문문.

그때 뭘 쓴다?

오형.

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판정 의문문.

그런데 판정 의문문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과 판정을 구분하는 중세 시기의 기준은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따지면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판정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

아형을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물은 말 유무와 상관없이.

즉 이렇게 설명, 판정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ㄴ다 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제 ㉠ 같게요.

이 문제 좋죠.

부터, 부테, 세간에 ㄱ.

이게 나왔어.

그런데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물어보는 건 부처가니까 3인칭 대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ㄴ다는 아니야.

지금 보면 2인칭일때 이거라고 했는데

부처니까 2인칭 대상은 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이것 중에 하나야.

그런데 풀이 가 보면 세간에 나신 것인가, 하면

네, 아니요.

판정으로 가.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아형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일단 3번 지우고 4번 지우고 5번 지워야죠.

왜?

나샤미신고나 나샤미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나샤미신가형. 아형으로 끝나는 이거로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을 봤더니 네, 풀이 뭐야? 너는.

2인칭이죠?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

뒤손되 하면 누+이손되 해서 누구에게서, 라는 거야.

그러면 설명이잖아요.

누구에게서니까 설명.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2인칭이니까 ㄴ다로 갑니다.

따라서 1, 2번 중에 ㄴ다로 끝나는 건 1번이었죠.

뵈훈다, 이렇게 ㄴ다로 끝났습니다.

2번처럼 뵈호는고로 가게 되면 무슨 형? 설명 의문문.

단, 2인칭이 아닐 때였어야 되는데

㉠은 너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역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특징을 비교하겠대요.

1번에 ㉠을 보면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움을 사용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온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현대어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효도하다.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ㅁ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결과물로 효도함.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느냐,

중세 때의 형태를 보니까 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는 뭐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외워야 돼요.

움이나 또는 움을 선택하게 되어있죠.

두 가지 명사형 전성어미.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을 선택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일단 효도까지는 그대로 가고

선생님, 아래아랑 오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아가 무조건 저요.

아래아는 힘이 제일 약한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래아랑 다른 모음이 인접해있다고 하면

다른 인접한 모음으로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효도흙이 되는 거죠.

1번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구나.

2번에 보게 되면 뜨디, 이 부분이니까 어두자음군 확인했고요.

다음 3번에 성손을, 현대어 풀이에는

을을 써야 될 자리인데 아래아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목적격 조사인 을을 사용했구나.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내시니다가 나왔죠.

그냥 내니다가 아니라 내시니다.

태어나겠다는 의미로 쓴 건데 이때의 시가 현대어 풀이에

내셨습니다가의 시랑 같은 거잖아요.

즉 주체 높임을 위한 선어말 어미는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4번 설명도 맞아요.

이제 5번이 왜 틀렸겠어.

㉠을 보면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어.

현대 국어에는 특수어휘가 맞아.

왜? 묻다의 특수어휘 여쭙다를 썼으니까.

그러나 우리 ㉠을 보게 되면 묻다, 라고 하는 기본어에

잡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만 넣었을 뿐이죠.

방식 다른 거 자꾸 반복되죠?

문제 5번입니다.

15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암기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격는 조사 세 가지를 어떻게 쓸 건지를 보기에 설명해줍니다.

지금은 보기에서 설명한 걸 읽었다.

외우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가볼게요.

㉠은 현대어 풀이로 뱀이.

그다음에 ㉡은 현대어 풀이가 뿌리가.

㉢은 대장부가.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힌트를 잘 삼아야 되는 건 이거라고 봐요.

용비어천가들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뿌리의 옛 단어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불휘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더하기 어떻게 된다? 묵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가볼게요.

답지를 보면 예를 들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대장부는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까지는 유지를 해주되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못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받침 없는 것 뒤에 뭐가?

| 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애는 이어적기 하는 상황이므로

대장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뱀의 옛 단어 지금 형태를 보니까 답지에서 유추하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배얌이죠.

그런데 배얌 더하기 받침이 있으니까 뭘 쓰고? 이를 쓰고

애는 이어적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쓴다?

배야미로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 여기 배얌이 아니라 바얌이, 바야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옛 단어는 이 단어였던 거야.

혹시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선생님, 야 같은 경우는 | 반모음 계열 아닙니까?

ㅈ.

그러면 ㅣ 반모음 계열 뒤에는 목음을 쓰라면서요.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여기 지금 ㅈ랑 여기에 나와 있는 ㅈ를 구분하면

애는 ㅣ 반모음 더하기 ㅈ 예요.

그래서 ㅣ + ㅈ 하니까 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중세 때를 이야기하면,

ㅈ 단모음에 ㅣ 반모음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ㅈ.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ㅣ 반모음으로 끝나야 돼.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애는 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이거 ㅣ 반모음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 국어의 개념으로 봤을 때

ㅣ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은 맞아요.

그런데 애로 시작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이 목음 조사 쓸 때는 이럴 때는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줘야지만.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그냥 풀이 보시고 풀면 돼요.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쇠고기는 쇼의 고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돌의 고기,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의가 다 들어가 있었던 형태.

구조는 옛날에 다 같았겠구나.

17번 너무 기본형이야.

우리 보면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현대어랑 비교하는 문제는 설명해주고 싶은데 17번은 설명할 가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체자는 획 더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아예는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모양 글자, 이체자라고 한 거죠?

18번 가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순경음 비읍,

반치음과 아래아에 대해 탐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으로 보아 중세 국어, 마찰, 그다음에 가찰의 반치음이

전부 다 어떻게 됐음을? 없어졌음을.

초성자가 없어졌죠.

그래서 ○ 형태로만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음운 변화 향상에 같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가보죠.

㉠을 보아 아래아는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

아까 설명드렸죠.

둘째 음절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주로 으로 변하고

첫 번째 음절은 아로 변하고.

실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2번은 지식으로도 풀 수 있고

보기를 통해서 보고 풀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3번, 답다의 경우에는 순경음 비읍이 만들어졌으니까

답어라고 구성이 되어있네요.

지금 ㉡ 부분에 보면 답다 같은 경우에 지금 모음 어미 어랑 붙었을 때는

모음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게 지금 연음이 되는 거로 결과물이 더뵈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더뵈 같은 경우가 현대로 넘어왔을 때는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기 때문에 ㄱ나 ㄷ로 주로 변하는데

애는 ㄷ로 변하는 현상이 생겼겠네요.

그래서 3번 설명 어쨌든 답다의 비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하여 이거로 바뀌는구나였고

4번에 결국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는

뒤에 따라붙는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에 보게 되면 또 곱다의 예도 들고 있었죠?

그러면 곱다에 아가 붙게 됐을 때 고봐였고

이게 음성, 이게 양성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ㅛ로 변할지 ㅜ로 변할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ㅜ는 음성이고 ㅛ는 양성이니까

결국 여기에 의해서 선택됐을 거다, 라는 정보가 4번입니다.

5번에 ㉡과 ㉢의 순경음과 반치음은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19번은 아래아의 변화 그 순서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둘째 음절 아래아 변한 거, 으로 변한 거 찾은 거니까는

1번 마늘, 2번 사슴, 5번, 아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또 ㉡에 첫째 음절 아래아가 ㅛ로 변한 거 골라내면

2번이 그중에 골라지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20번 문제까지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합시다.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먼저 1번 ㉠에 고성이에요.

현대어 풀이 보셔야 돼요.

고성과야.

비교 부사격 맞죠?

그러면 비교나 기준의 대상이다, 좋아요.

2번 갑니다.

불휘, 아까 봤던 거.

즉 주격조사 (가)에 나타나는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형태는 없어요.

발음할 때만 좀 길게 읽어요.

㉢ 가겠습니다.

남간인데 여러분, 이거 설명드린 적 있어요.

애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그래서 ㄱ 덧붙는 체언인데 애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붙었을 때는 애가 붙는데

애는 모음 조사랑 붙을 때 애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3번 답지도 보시면,

남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이렇게 붙은 건데

이게 지금 이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간,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의 풀이고.

따라서 3번 답지에서 ㄱ 덧붙는 체언인 거 맞죠?

다음에 ㉠에 조사 은과 조사 은이 서로 형태는 다르다,

동일한 자격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

㉠에 여기 이거 붙었죠?

그다음에 ㉠에 보게 되면 므른,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원형은 어떻게 되죠?

믄+은이죠.

양성이니까 양성인 은, 음성이니까 음성인 은이 붙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적기 하니까 이 형태인데

물론 형태는 둘이 다르지만, 기능이 어떻습니까?

같죠.

자격이 동일합니다.

4번 설명도 맞아요.

그러면 5번은 왜 틀릴까.

5번에 ㉠과 ㉡에 조사 예가

모두 앞 체언이 원인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 부분 볼까요?

바람에 아니될째, 라고 이야기했을 때 풀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예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있죠.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으로 인해 흔들린다.

이거 원인의 개념이 맞아요.

㉠은 좋아요.

그런데 ㉡을 보세요.

바라레 가나니.

내히 이러 바라레 가나니.

그런데 이 바라레가 바랄 더하기.

㉢이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랄, 바다의 옛 단어.

바다의 옛 형태가 바랄인데 더하기 애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적기 하니까 바라레로 간 건데

이 애가 풀이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로 풀이가 되네.

그러면 이게 원인입니까? 이 애가?

도착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 도착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은 이 문제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잘 챙겨보셔야 돼요.

뜻풀이랑 연결하시고 조사의 기능, 의미 다 파악하셔야 되죠.

그래서 5번 답지는 ㉠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원인이 아니다.

도착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번에 확인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8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